

우리 모두 영화 'SICKO(식코-아픈 것들)' 을 보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변혜진

영화 식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민영보험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에 넘기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료제도가 한국의료의 미래라는 이야기다.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함께봐요 식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폭로하는 영화 ‘화씨 911’로 잘 알려진 마이클 무어가 이번엔 미국의료제도에 대해 카메라를 들이댔다.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없고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료제도의 현실을 환자들의 증언과 인터뷰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미국의 노동자 릭은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다. 그리고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병원을 찾아간다. 의사는 말한다. 중지 접합수술비용은 600만원이고 약지 손가락 접합수술비용은 1200만원입니다. 돈이 없는 릭은 결국 둘 중 한 손가락 접합을 선택해야 했고, 1200만원을 내고 약지 손가락 하나만 접합한 채로 병원 문을 나온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아무런 보험도 가지고 있지 못한 또 다른 노동자는 무릎이 10센티 이상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싸 결국 직접 찢어진 상처를 바늘과 실로 꿰매고 만다. 영화 식코는 이런 미국인들의 실상으로 시작된다.

문제는 이런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 하는 미국인들이 5천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전 세



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없고 보험회사들이 병원과 의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GDP의 15%나 되지만 국민의 의료만족도는 최하위인 나라, 영아사망률이 쿠바보다도 높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민영보험에 가입돼 있는 미국인들의 현실은 괜찮을까? 영화 식코가 핵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점은 바로 민영의료보험사들의 건강관리기구라고 불리어지는 HMO 조직의 부조리와 폭리다.

보험회사 여직원은 보험 가입 불승인이 된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흘린다. 한 부부가 이제 드디어 보험을 가지게 되었다며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결국은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여직원은 안다. 그들의 개인 질병 정도가 민영의료보험 가입에 부적격했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보험을 가지게 되었어요. 걱정말아요” 라고 말하던 그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 부적격 통보를 받고 만다. 미국의 민영보험회사는 개인질병을 가지고 가족력, 과거질병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정말로 해야 하는 ‘아픈 사람들’ 은 이미 보험가입에서 제외시킨다. 하다못해 보험 가입의 불승인 판정의 사유가 “너무 뚱뚱해다” 혹은 “너무 말랐다” 는 정도이니 미국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행운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꼬박 꼬박 보험금을 내고도 과거의 단순한 질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혹은 당신이 든 보험에서는 이런저런 치료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

료를 못 받거나 미루다가 죽음을 맞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영화의 중요한 줄거리다. 오죽하면 곰팡이균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사실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민영보험회사의 이야기가 나올까. 이 이야기는 무좀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당신은 이전에 곰팡이균에 감염된 적이 있으므로 치료비 지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민영의료보험 건강기구에 소속된 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낮추려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적정진료를 거부하는 형태까지 발생한다. 보험회사 편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은 매달 보너스를 받고 승진을 하는 의료제도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영화는 잘 보여준다.

의료소송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왜냐면 보험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의사들의 처방이 가능해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이 커지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은 인권을 소중히 하는 나라처럼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영화 식코가 보여주는 현실을 보면 의료는 예외인 것이 분명하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뼈가 부러진 환자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고, 정맥주사를 꽂은 채로 길거리에 버린다. 자비심이 많은 나라 미국의 의료현실의 단면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미국의 의료제도를 닮아가려는 걸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료산업화의 큰 세가지 축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영리병원의 허용’ 이다.

먼저 당연지정제 폐지를 살펴보자. 한국의 모든 병의원·약국은 건강보험 환자들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환자들을 안 받아도 되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이를 찬성하고 나섰다. 이미 2002년 몇몇 의사들이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당연지정제 위헌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제도라며 합헌 판결을 낸 바도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본인부담금 외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지만 건강보험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고, 환자들은 모두 높은 진료비



를 본인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당연지정제 폐지는 영화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 의료제도로 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민영보험 활성화는 무엇을 뜻하는가. 정부는 그동안 국가가 관리 수집하던 국민의 개인질병을 민영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보험상품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질병정보의 소유가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때문에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보험협회에서는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몇 차례 시민사회와의 충돌이 있어 왔다. 영화 식코가 보여주듯이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가 민영보험회사에게 넘어간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보험 가입 시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병을 앓았던 사람의 보험금은 매우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영리병원화는 병원을 주식회사 같은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이 당장 주식에 상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 돈을 남기는 방식은 두 가지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축소하거나 환자

들의 호주머니를 더 뜯어내는 방법. 병원이 주주들의 소유가 되고,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에만 쓰도록 하는 비영리기관을 영리형으로 허용하게 되면 병원들의 돈벌이 형태는 더욱 기승을 할 것이고, 주식까지 상장된다면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결국 환자들에 대한 과잉진료가 부추겨질 것이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영화 식코가 영화관에 상영되기 전에 “함께 봐요 식코” 캠페인을 진행하던 사회단체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식코 무료 관람권”을 전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진행 한 바 있다. 의료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자들이 자신들이 입안하려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를 좀 보라는 뜻에서였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가 한국의 미래라는 주장을 하는 시장주의자들에게 미국의 국민들이 어떤 의료제도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영화를 통해 공부 좀 하시라는 뜻에서였다.

영화가 개봉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영화 식코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저런 의료제도가 한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제발이지 대통령과 정부 정책자들이 영화를 보고 한국의료의 미래를 미국식 의료제도로 제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여러 글들과 주문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조차 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필요 없다는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마이클 무어는 미국의료제도를 모르는 대통령들은 영화 ‘식코’를 꼭 보라고 요구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꼭 영화 식코를 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식코2는 한국이 무대가 될 것이고 주연배우는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붕괴되어 높은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친 팔다리를 자기가 꿰매야 하는 현실의 주인공은 한국국민이 될 지도 모른다.

늦지 않았다. 영화 식코가 보여준 끔찍한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식코를 보고 정부에게 요구하자. 그리고 마이클 무어가 제시한 병원에 가서 돈을 내지 않는 무상의료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처럼 한국도 무상의료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항의하고 싸우자.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물가인상과 높은 등록금 때문에 지금도 허리가 휠 지경인 국민들을 의료비 폭등으로 몰아가는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무서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돈이 없어 죽어야 하는 나라가 미래여선 안된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지금 당장, 여기서의 권리가 돼야 한다.